

2016년 4월 사역 소식지

이곳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은 한국보다 겨울은 춥지만 봄은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개나리와 살구꽃들은 이미 만개했다가 떨어지고, 이제 조금 늦은 체리나무의 꽃들이 화사하게 만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소련시절 연방공화국이었던 카작과 키르기스스탄도 경제불럭화 되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이 치솟다가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내수 경제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감은 비단 이곳만은 아닐 겁니다. 한국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새로운 활로를 찾기에 바쁜 듯합니다.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 되어 모든 만물과 함께 한국과 이곳 모든 사람들의 삶도 좀 더 소망과 생명력이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1. Good Partner 사역

알라토 그룹홈(보육원)의 12명의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큰 아이들은 7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소소한 집안의 일들을 돕기도 합니다. 보모 '라이사'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손이 늘 부족합니다. 마당의 가축들의 먹이를 주고 우리를 치우는 일은 남자 아이들이 돕고, 지마가 자주 이곳에 와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지마는 낮에 일을 하면서 가까운 교회의 수위를 보고 있는데, 야간학교로 7학년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곳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아이들과 이런 저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미용사, 한국어를 해서 한국에 가고 싶다..." 아직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들이 자신의 소망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아카데미는 최근에 현지인 교사가 한국으로 연수를 가게 되어 비는 수업들을 다른 사역자들이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업은 고려인 회관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가끔 발표회나 특별한 행사들은 나판 선생님네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법무부에 교회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선은 학원으로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학원등록이 잘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물에서 학생들과 주말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 활동들과 여름의 한국어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도 되고 교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올 여름에도 한국의 교회에서 방문하여 한국어 캠프를 운영해 주기로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으스아타의 유치원 지원 사역으로 수리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학교의 부속건물로 공간은 확보되어 있고, 학교의 부속 유치원으로 교사도

교육부로부터 급여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개원식을 하고, 시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 정부와 학교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방정부와 학교와의 관계에 신뢰가 쌓이면, 이곳에 파견되어 사역하는 저희 팀의 사역자들이 다양한 사역과 활동에 긴밀한 협력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역입니다.

2. 현지 교회 소규모 자영업 지원 사역

교회의 젊은 부부(울란 & 아슬)가 시작한 비닐 하우스에는 샬러드용 무를 심었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잘 자라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 딸기와 오이로 바꾸어 심기로 했습니다. 산딸기는 이곳 지대가 높아서(해발 800미터) 밭에 심어도 마치 한국의 산 계곡에서 자라듯이 잘 자랍니다. 비닐하우스 옆의 우리에는 양들이 7-8마리가 있는데, 사실 이들은 양이나 가축을 기르라고 하면 더 잘 기르는 유목민족들입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 밭을 이용해 농사를 시작해 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에서 비닐하우스를 몇 해 경험한 사람과 상의해 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울란과 아슬은 두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이지만 함께 사는 부모님은 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주중에 가족 모두 직장을 다니다 보니 주일날이나마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셔서 가끔 주일예배 참석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리더인 이들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가족 구원의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슬은 저희 단체 한국 사역자들의 비자업무를 파트로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를 통해 서류수속을 했는데, 저의 단체의 파트 직원으로 중요한 비자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를 통해 알고 있는 신실한 부부라서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이들입니다. 이들의 시골에서의 삶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스हत은 재래시장에 개업한 옷수선 코너를 운영하느라 숨돌릴 틈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직원이 있지만, 여전히 일감을 구하고 부족한 기술을 배우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조금 불안한 듯하지만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년에 세차례 각 2주간씩 집중강의가 있는 신학공부도 올해 5월에 한번 더 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

다. 멀리 시골에 있는 부모님도 어머니만 신앙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아버지도 신앙을 가지게 되어 이곳 비쉬첵에서 일년에 두차례씩 있는 성경학교에 공부하려 함께 다니러 오곤 합니다. 부모님이 이곳 비쉬첵으로 오면 나스हत의 작은 집에 부모님과 두 아들, 그리고 때로는 여동생과 조카들까지 모이는 센터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나스हत의 어깨에 늘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집에 가끔 와서 푸념도 하고, 이런 저런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는 늘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저희에게 도전이 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에 격려가 되곤 합니다. 나스हत은 우리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많은 해결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에 저희는 큰 보람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나스हत이 신실하게 일과 관계속에서 귀한 신앙인으로 자리를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까이는 러시아로 몇 년동안 일을 하면서 러시아 교회의 찬양사역자로 섬기다가, 이번에 그쪽에서 파송된 사역자와 함께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사역자는 이곳에서 알콜 중독자 회복 사역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까이는 러시아에 있는 동안 가국 판넬 제단소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이곳에서 우선 목공작업으로 일을 시

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구제작의 경험이 있어서 몇 가지 필요한 상황들을 조언해 주고, 우선 집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핸드드릴과 몇가지의 필수적인 목공 도구들을 구입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우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 주변에 광고 전단을 붙이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무까이가 일도 자립하고 귀한 자신의 은사를 사역에 헌신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앙아시아 M전략 연구소

지난 가을 있었던 '이슬람포럼'이 이곳 사역자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이번 4월에 다시 열기로 계획 중입니다. '민속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M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강사로 한분이 오시고, 이곳 사역자들 가운데 4명이 발제를 하고 논찬자들을 통해 질의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사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제적인 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문서사역으로 '사사기 강해'서를 발행했는데, 다음 달에 '주기도문 강해'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집'을 러시아어와

키르기즈어 두 가지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현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기 위한 저희 연구소의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N.T. Wright의 에브리원 주석 번역 작업*은 마가 복음이 이제 정말로 마무리 편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마무리 될 듯한 일들이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라 진전이 더딤니다. 곧 출간되기를 위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잘 마감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빈 교수는 1월에 돌아온 이후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이 번역 프로젝트를 잘 지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도행전 감수작업은 1/3정도 마쳤는데, 함께 작업 하던 현지인 마하밧이 한국으로 가게 되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하밧은 제가 아는 상지대의 신윤근 교수님을 통해 대학원 입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달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지금 원주에 정착하여 신교수님의 교회공동체에 소속하여 외국에서 온 2명의 외국인 학생과 함께 기숙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대학원을 마칠 때 까지 학위와 함께 신앙 훈련도 잘 받아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족들 스케치

지은이는 이제 1년을 잘 마치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작은아이 지아가 이번에 같은 대학에 입학이 되어 원주로 갔습니다. 둘 다 같은 기숙사 건물에서 지내게 되어 저희는 정말 감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지아도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언니와 함께 있어서 대학생활과 교회생활 친구 관계 등 모든 생활에 서로 의지가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늘 따스한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동역으로 저희가 이곳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헤브론정, 엘레나김 드림